

클로드코드 영상 활용 · 무료

릴스 자동화 5단계

비싼 강의 없이, 리모션으로 직접 만든다

정보 릴스 · 벤치마킹 → 제작 → 업로드 → 예약발행 · 복붙 프롬프트 포함

목차

PART 0	시작하기 전에 · 비싼 강의가 숨기는 한 가지	1
0.1	릴스는 Remotion, 쓰레드는 그냥 글	1
0.2	전체 그림 · 릴스 공장 5단계	1
PART 1	무엇을 줄지 정한다	3
1.1	주제는 좁을수록 좋습니다	3
1.2	열흘치 메시지를 한 번에 쪼개기	3
1.3	정보의 출처는 정확해야 합니다	4
PART 2	벤치마킹할 릴스를 소싱한다	6
2.1	어떤 릴스를 고를까	6
2.2	본 영상을 "글로 된 설계도"로 바꾸기	6
PART 3	클로드코드로 Remotion 릴스를 만든다	8
3.1	Remotion 이 도대체 뭔가요	8
3.2	리모션 프로젝트 만들기	9
3.3	폼 설계도를 릴스로	9
3.4	사진·이미지 넣기	10
3.5	목소리 넣기 · 돈 안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10
3.6	영상으로 뽑기 · 첫 판은 원래 별로입니다	11
PART 4	인스타 API 를 연결해 올린다	13
4.1	API 가 뭔가요, 왜 필요한가요	13
4.2	발급은 클로드코드와 함께	13
4.3	MCP 로 더 간단히 가는 길도 있습니다	14
PART 5	열흘치 미리 만들고 예약발행한다	16
5.1	틀은 그대로, 내용만 바꿔 찍어낸다	16
5.2	미리 만들어, 예약으로 올린다	17

PART 0

전체 6장

시작하기 전에 · 비싼 강의가 숨기는 한 가지

릴스 자동화 강의를 검색하면 30만 원, 50만 원짜리가 줄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강의들이 약속하는 "자면서도 콘텐츠가 올라가는 공장"은, 사실 도구 하나의 존재만 알면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도구 이름이 **Remotion(리모션)** 입니다. 코드로 영상을 만드는 도구인데, 코드를 몰라도 됩니다. 코드는 클로드코드가 대신 씁니다. 이 책은 제가 실제로 정보 릴스를 찍어내는 방식을, 첫 단계부터 예약발행까지 숨김없이 보여드립니다.

이 책은 딱 하나만 전제합니다. **클로드코드가 이미 깔려 있다는 것**. 아직이라면 무료 자료실의 "간편 설치법" 먼저 보고 오세요. 5분이면 됩니다.

0.1 릴스는 Remotion, 쓰레드는 그냥 글

먼저 헷갈리지 않게 딱 나눠두겠습니다.

- **릴스(영상)** 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화면·자막·사진이 움직이는 영상을 찍어내야 하니까요. 그게 Remotion 입니다.
- **쓰레드(글)** 는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글이라서 클로드코드에게 바로 쓰게 하면 끝입니다. (이건 맨 뒤 보너스에서 짧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 책의 90%는 릴스, 즉 Remotion 이야기입니다. 영상만 자동으로 뽑을 수 있으면, 글은 덤이거든요.

0.2 전체 그림 · 릴스 공장 5단계

제가 릴스 하나를 만드는 순서는 늘 똑같습니다. 다섯 걸음입니다.

1. 무엇을 줄지 정한다 — 어떤 정보를 담을지 (PART 1)
2. 벤치마킹할 릴스를 소싱한다 — 잘 나가는 릴스 하나를 골라 "폼"을 빌린다 (PART 2)
3. 그 폼에 맞게 클로드코드로 **Remotion** 릴스를 만든다 — 사진도, 목소리도 넣을 수 있다 (PART 3, 이 책의 심장)
4. 업로드 API 를 연결해 올린다 — 인스타그램에 발행 (PART 4)
5. 미리 열흘치 만들어 예약발행한다 — 공장 완성 (PART 5)

릴스 공장 5단계

정보 정하기부터 예약발행까지, 반복은 클로드코드가 합니다

- 1 **무엇을 줄지 정한다**
한 릴 = 한 메시지 · 열흘치 소재를 한 번에
- 2 **벤치마킹 릴 소싱**
잘 되는 릴의 "폼"을 빌린다
- 3 **클로드코드 + Remotion 제작 ★**
틀을 만들면 반복이 공짜 · 이 책의 심장
- 4 **업로드**
인스타 API 를 연결해 올린다
- 5 **열흘치 예약발행**
미리 만들어 두고 자동으로

여기서 3번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3번을 반복 가능하게 만들고, 자동으로 올리는 살을 붙이는 일이에요. 그러니 힘을 빼고 읽으시다가, PART 3 에서 정신 차리시면 됩니다.

💡 이 책의 회색 상자(복붙 박스)는 그대로 복사해서 클로드코드에 붙여넣으면 되는 프롬프트입니다. 상황에 맞게 대괄호 [] 안만 바꾸세요.

◆ 이 PART의 핵심 정리

- 비싼 릴스 자동화 강의의 정체는 대부분 "Remotion 이라는 도구를 클로드코드로 다루는 법"이다
- 릴스(영상)는 Remotion 이 필요하고, 쓰레드(글)는 도구가 필요 없다
- 만드는 순서는 5단계, 그중 진짜 핵심은 3단계(제작)다

PART 1 전체 6장

무엇을 줄지 정한다

릴스를 만들다 막히는 첫 번째 지점은 도구가 아니라 "오늘 뭘 올리지?"입니다. 여기서 하루가 날아갑니다. 이 단계는 그걸 막는 단계예요.

핵심 원칙 하나면 됩니다. **한 릴 = 한 메시지**. 릴스 하나에는 딱 한 가지만 담습니다. 15초 안에 "아, 이거 하나 배웠다" 소리가 나오게요. 정보를 욕심내서 세 개 넣으면, 보는 사람은 0개를 가져갑니다.

1.1 주제는 좁을수록 좋습니다

"AI 소식"은 너무 넓습니다. 매일 뭘 올리질 또 고민하게 돼요. 대신 이렇게 좁힙니다.

- 넓게: "AI 활용법"
- 좁게: "비전공자가 클로드코드로 하는 일 하나씩"

좁히면 소재가 오히려 무한해집니다. 하나의 큰 주제 안에서 매일 다른 각도 하나씩만 꺼내면 되니까요. 열흘치를 한 번에 뽑기도 쉬워집니다.

1.2 열흘치 메시지를 한 번에 쪼개기

주제를 정했으면, 클로드코드에게 열흘치 "한 줄 메시지"를 한꺼번에 뽑게 합니다. 나중에 이 한 줄 하나하나가 릴스 한 편이 됩니다.



복붙해서 주제만 바꿔 쓰세요.

TEXT

나는 인스타그램에 정보 릴스를 매일 올리려고 해.

주제는 [비전공자가 클로드코드로 할 수 있는 일] 이야.

이 주제로 릴스 10개를 기획해줘. 각 릴스는 딱 한 가지 메시지만 담아.

표로 만들어줘. 칸은 이렇게:

- 번호
- 한 줄 후킹 (첫 3초에 뜰 문장, 궁금하게)
- 핵심 메시지 (이 릴로 딱 하나 알려줄 것)
- 근거나 예시 (있으면)

너무 뻔한 건 빼고, 사람들이 저장하고 싶어질 실용적인 걸로.

이걸 돌리면 표 하나가 나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줄은 "3번, 7번 다시"라고만 하면 그 줄만 새로 뽑아줍니다.

1.3 정보의 출처는 정확해야 합니다

정보 릴스는 틀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클로드코드가 준 내용 중 숫자·사실은 반드시 원문을 한 번 확인합니다. 클로드코드 안에서 웹 검색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복붙해서 확인할 때 쓰세요.

TEXT

방금 만든 표에서 숫자나 사실이 들어간 항목은,

웹에서 원문을 찾아 맞는지 확인하고 출처 링크를 옆에 붙여줘.

확인 안 되는 건 "확인 필요"라고 표시해줘. 지어내지 마.

"지어내지 마"와 "확인 안 되면 확인 필요라고 써"를 꼭 넣으세요. 이 두 줄이 헛소리를 걸러줍니다.

⚡ 한 단계 더 — 표가 마음에 들면 그대로 파일로 저장해두세요. "이 표를 content.md 로 저장해줘" 한 줄이면 됩니다. 다음에 릴스를 만들 때 이 파일만 열면 오늘 뭘 만들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흘치 소재 창고가 생기는 거예요.

◆ 이 PART의 핵심 정리

- 릴스 하나에는 메시지 하나만 담는다 (한 릴 = 한 메시지)
- 주제는 좁힐수록 매일 올릴 소재가 오히려 많아진다
- 열흘치 한 줄 메시지를 표로 한 번에 뽑고, 숫자·사실은 원문으로 확인한다

PART 2

전체 6장

벤치마킹할 릴스를 소싱한다

여기서 실력 차이가 갑니다. 대부분은 릴스를 "맨땅에서" 디자인하려다 무너집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이미 잘 나가는 릴스 하나를 골라 그 틀을 빌립니다.**

영상이 잘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막이 뜨는 리듬, 화면이 나뉜 구조, 첫 3초의 후킹. 이런 걸 "폼(for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폼은 남의 걸 빌려도 됩니다. 내용만 내 것이면 표절이 아니에요. 방송 포맷을 여럿이 따라 쓰는 것과 같습니다.

2.1 어떤 릴스를 고를까

내 주제와 같은 판에서, 조회수가 유난히 잘 나온 릴스를 찾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보를 전달하는** 릴스를 고르세요. 춤·밈 말고요. 고를 때 이 세 가지만 봅니다.

- **화면 구조:** 위·아래가 나뉘어 있나, 자막이 어디 뜨나
- **후킹:** 첫 문장이 뭐길래 안 넘기고 봤나
- **리듬:** 자막이 한 문장씩 탁탁 바뀌나, 길게 머무나

마음에 드는 릴스를 찾으면 링크를 저장해두세요. 이게 이번 릴스의 설계도 원본이 됩니다.

2.2 본 영상을 "글로 된 설계도"로 바꾸기

이게 이 단계의 진짜 기술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저 릴스 느낌"을 클로드코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글로 옮기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받아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붙하고, 본 영상을 떠올리며 대괄호를 채우세요.

TEXT

내가 벤치마킹할 릴스를 관찰해서 적었어. 이걸 "영상 품 설계도"로 정리해줘.

- 화면 비율: 세로 9:16
- 화면 구조: [예: 위쪽 60%는 소품/이미지, 아래쪽 40%는 자막]
- 후킹(첫 3초): [예: 큰 글씨로 질문 한 줄이 먼저 뜬다]
- 자막 리듬: [예: 한 문장씩 0.1초 간격으로 탁탁 바뀐다]
- 색/느낌: [예: 흰 배경, 검은 글씨, 포인트는 주황색]
- 길이: [예: 15~20초]

이걸 표로 정리하고, 이 품으로 릴스를 만들 때 지킬 규칙 목록으로 바꿔줘.

여기서 나온 "규칙 목록"이 PART 3 에서 클로드코드에게 넘길 주문서입니다. 좋은 주문서 하나가 결과의 8할을 결정합니다.

⚡ 한 단계 더 — 영상을 말로 옮기기 어려우면, 릴스를 캡처해서 사진 몇 장으로 저장한 뒤 클로드코드에 보여줘도 됩니다.
"이 화면들 보고 품 설계도로 정리해줘"라고 하면, 눈으로 본 걸 대신 받아써 줍니다.

◆ 이 PART의 핵심 정리

- 릴스를 맨땅에서 디자인하지 말고, 잘 나가는 릴스의 "품"을 빌린다 (내용만 내 것이면 됨)
- 화면 구조·후킹·자막 리듬 세 가지만 관찰한다
- 본 영상을 "글로 된 설계도(규칙 목록)"로 바꿔 두면, 그게 제작 단계의 주문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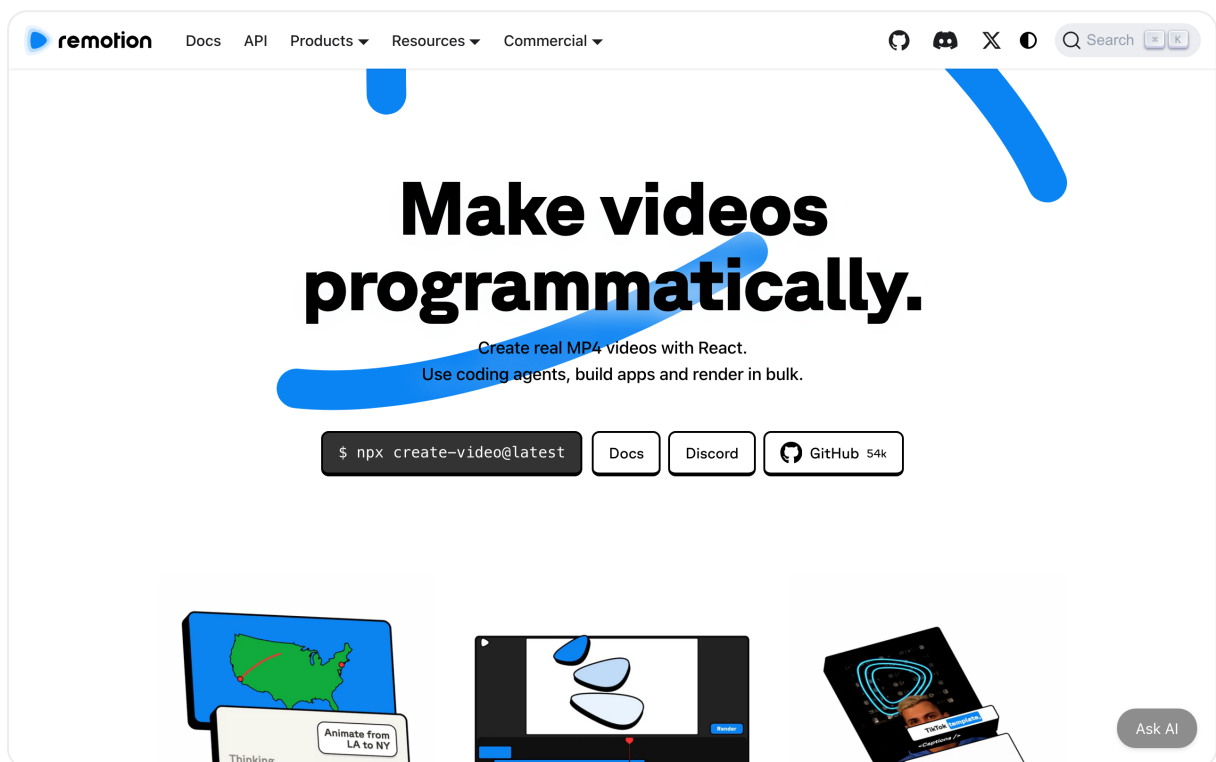
PART 3 전체 6장

클로드코드로 Remotion 릴스를 만든다

이 책의 심장입니다. 여기만 넘으면 나머지는 쉬워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비싼 강의들이 "우리만 안다"는 듯 파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체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1 Remotion 이 도대체 뭔가요

Remotion(리모션)은 **코드로 영상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보통 영상은 프리미어나 캡컷 같은 편집기에서 마우스로 자르고 붙이죠. 리모션은 다릅니다. "1초에 이 글씨, 2초에 이 사진"을 글(코드)로 적으면, 그 글대로 영상을 뽑아줍니다.



리모션 공식 사이트(remotion.dev). 첫 문장이 "Make videos programmatically" = 코드로 영상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아래에 "코딩 에이전트로, 대량으로 렌더"라고도 적혀 있죠. 우리가 하려는 게 딱 이것입니다.

여기서 겁먹을 필요 없는 이유. **그 코드는 우리가 안 씁니다. 클로드코드가 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말로 하고, 클로드코드가 리모션 코드를 써서 영상을 만들어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자막을 더 크게" 같은 주문만 하면 됩니다.

왜 편집기 대신 이걸 쓰냐면, **똑같은 걸 백 번 찍어내기 좋아서**입니다. 편집기는 영상 하나 만들면 다음 영상은 또 처음부터 마우스질이에요. 리모션은 틀을 한 번 만들어두면, 내용만 바꿔 열 개, 백 개를 자동으로 뽑습니다. 이게 "자동화"의 정체입니다.



참고로 리모션은 개인과 소규모 사용은 무료입니다. 회사 규모가 커지면 라이선스가 필요하지만, 우리처럼 혼자 콘텐츠 만드는 단계에서는 돈이 안 듭니다.

3.2 리모션 프로젝트 만들기

클로드코드를 켜고, 릴스를 만들 새 폴더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설치도 클로드코드가 알아서 합니다.



복붙해서 시작하세요.

TEXT

이 폴더에 Remotion 으로 세로 영상(9:16, 1080x1920)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줘.
필요한 설치도 네가 다 해줘. 다 되면 미리보기 스튜디오를 어떻게 켜는지 알려줘.
나는 코드를 모르니까, 내가 할 일만 짧게 알려주면 돼.

클로드코드가 리모션을 깔고 기본 영상 프로젝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 "미리보기"를 켜면(보통 `npm run dev` 한 줄), 브라우저에 영상 편집 화면이 뜹니다. 왼쪽에서 재생해보며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미리보기 창을 켜 두는 게 중요합니다. 주문할 때마다 바로바로 결과가 보이거든요.

3.3 폼 설계도를 릴스로

이제 PART 2 에서 만든 "폼 설계도(규칙 목록)"와 PART 1 의 "한 줄 메시지"를 클로드코드에 넘깁니다.



복붙하고, 앞에서 만든 두 가지를 붙여넣으세요.

TEXT

아까 만든 폼 설계도야:
[PART 2 에서 나온 규칙 목록 붙여넣기]

이번 릴스에 담을 내용이야:
[PART 1 표에서 오늘 만들 한 줄 메시지 + 핵심 내용 붙여넣기]

이 폼대로 Remotion 릴스를 만들어줘.

- 자막은 문장 단위로 타이밍 맞춰 나오게
- 후킹 문장은 처음에 크게
- 색과 화면 구조는 폼 설계도 그대로

만들고 나서 미리보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알려줘.

첫 결과가 나오면 미리보기로 봅니다. 그리고 벤치마킹한 원본 릴스를 옆에 띄워 나란히 비교하세요. "자막이 너무 빨라", "위쪽 여백이 많아" 같은 걸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이 왕복을 서너 번 하면 폼이 자리를 잡습니다.

3.4 사진·이미지 넣기

"사진 첨부 가능"이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릴에 사진이나 이미지를 넣고 싶으면 방법은 간단해요. 넣을 파일을 프로젝트 폴더에 모아두고, 어디에 넣을지 말로 지시하면 됩니다.

💡 복붙해서 쓰세요.

TEXT

사진 파일들을 이 프로젝트 폴더에 넣어놔요.
이 사진을 릴스 3초 지점에 [위쪽 화면]으로 넣어줘.
세로 영상에 맞게 잘라서.

스톡 사진보다 직접 찍은 사진이나 진짜 화면이 훨씬 믿음이 갑니다. 무엇을 넣을지만 정하면, 넣는 일은 클로드코드가 합니다.

3.5 목소리 넣기 · 돈 안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막만 있는 릴스도 되지만, 목소리가 깔리면 체류 시간이 확 늘어납니다. 문제는 AI 목소리 서비스들이 대부분 유료라는 거죠. 월 몇만 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완전 무료로 되는 방법**이 있어요. `edge-tts` 라는 도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에 들어 있는 음성 기능을 그대로 쓰는 건데, **계정도 결제도 API 키도 필요 없습니다**. 한국어 목소리도 자연스럽고요.

설치와 실행 전부 클로드코드에게 시키면 됩니다.

💡 복붙해서 쓰세요.

TEXT

`edge-tts` 라는 무료 음성 도구를 설치해줘.
그리고 아래 문장을 한국어 여성 목소리로 읽어서 mp3 파일로 만들어줘.

"여기에 릴스 나레이션 문장을 넣으세요"

만들어진 파일을 이번 Remotion 릴스에 목소리로 넣어줘.

클로드코드가 실제로 돌리는 명령은 이렇게 한 줄입니다.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화면에 이게 지나가면 "아 저게 목소리 만드는 거구나" 하시면 됩니다.

BASH

```
edge-tts --voice ko-KR-SunHiNeural --text "대본" --write-media voice.mp3
```

한국어 목소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취향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 `ko-KR-SunHiNeural` — 여성, 밝고 친근한 톤
- `ko-KR-InJoonNeural` — 남성, 차분한 톤
- `ko-KR-HyunsuMultilingualNeural` — 남성, 다국어 지원

말이 너무 느리면 속도도 올릴 수 있습니다. "15% 빠르게 해줘" 라고 하면 클로드코드가 `--rate=+15%` 를 붙여줍니다. 릴스는 조금 빠른 게 잘 맞아요.

⚡ 한 단계 더 — 이 도구는 개인이 콘텐츠 만들 때 쓰기에 아주 좋은데, 엄밀히 말하면 "브라우저 안에서 쓰라고 만든 기능을 밖에서 끌어다 쓰는" 방식이라 약관이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취미나 개인 채널이면 부담 없이 쓰시고,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는 단계**가 되면 구글 클라우드의 음성 서비스로 옮기세요. 거기다 **매달 수백만 자까지 무료**라 릴스 만드는 정도로는 요금이 안 나옵니다. 릴 한 편 나레이션이 300자쯤이니까요.

3.6 영상으로 뽑기 · 첫 판은 원래 별로입니다

미리보기가 마음에 들면 진짜 영상 파일(mp4)로 뽑습니다.



복붙해서 쓰세요.

TEXT

```
이 릴스를 mp4 영상 파일로 뽑아줘. 인스타 릴스에 올릴 거야.  
다 되면 파일이 어디에 저장됐는지 경로를 알려줘.
```

클로드코드가 렌더링(영상으로 굽는 것)을 돌리고, `out` 폴더 같은 곳에 mp4 를 만들어 줍니다. 이걸 그대로 인스타에 올리면 됩니다.

⚡ 한 단계 더 — 첫 렌더는 거의 항상 어딘가 어색합니다. 정상입니다. 저도 그래요. 중요한 건 벤치마킹한 원본과 나란히 놓고 "뭐가 다른지"를 클로드코드에게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자막 위치가 원본은 더 아래", "글씨가 원본보다 두꺼움" 이렇게요. 세 번쯤 왕복하면 원본만큼 나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려 하지 말고, 고쳐가며 완성하세요.

◆ 이 PART의 핵심 정리

- Remotion 은 코드로 영상을 찍어내는 도구고, 그 코드는 클로드로 대신 쓴다
- 틀을 한 번 만들면 내용만 바꿔 수십 개를 자동으로 뽑을 수 있다 (이게 자동화의 핵심)
- 릴에 사진·이미지를 넣고 싶으면 폴더에 모아두고 어디에 넣을지만 말하면 된다
- 목소리는 edge-tts 로 완전 무료다 (계정·결제·API 키 전부 불필요, 한국어 3종)
- 첫 렌더는 원래 어색하다. 원본과 나란히 비교하며 서너 번 고치면 된다

PART 4 전체 6장

인스타 API 를 연결해 올린다

영상이 나왔으니 올릴 차례입니다. 손으로 올려도 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가려면, 인스타그램이 열어둔 정식 통로로 올려야 해요. 그 통로가 **API** 입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단계가 5단계 중 손이 제일 많이 갑니다. 계정 설정, 권한 발급 같은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번 연결해두면 그 뒤로는 영상만 넘기면 알아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책은 이 단계를 "원리만 잡고 넘어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4.1 API 가 뭔가요, 왜 필요한가요

API 는 쉽게 말해 **프로그램끼리 주고받는 정식 창구**입니다. 사람이 앱에서 손으로 올리는 대신, 클로드코드가 이 창구로 "이 영상 올려줘"라고 요청하면 인스타가 받아서 올려줍니다. 자동화하려면 이 창구가 꼭 필요해요.

인스타그램은 이 창구를 **인스타그램 그래프 API(Instagram Graph API)** 라는 이름으로 열어줬습니다. 쓰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 인스타 계정이 **프로 계정**(비즈니스 또는 크리에이터)이어야 합니다. 설정에서 무료로 전환됩니다.
- 그 계정을 **페이스북 페이지**와 연결해야 합니다. 이것도 무료예요.

이 두 개가 인스타가 요구하는 "너 진짜 이 계정 주인 맞아?"의 확인 절차입니다.

4.2 발급은 클로드코드와 함께

정식 창구를 쓰려면 열쇠(토큰)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화면을 여럿 거쳐서 글로만 설명하면 헛갈립니다. 그래서 클로드코드에게 길잡이를 시키는 게 제일 빠릅니다.



복붙해서 쓰세요. 막히는 화면이 나오면 그 화면을 캡처해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TEXT

나는 인스타그램에 릴스(mp4)를 API 로 자동 업로드하고 싶어.
 인스타그램 그래프 API 를 쓰기 위한 준비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알려줘.

- 나는 비전공자야. 클릭할 것만 짧게, 순서대로.
- 프로 계정 전환, 페이스북 페이지 연결, 앱 만들기, 토큰(열쇠) 발급까지.
-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성공인지"도 같이 알려줘.

화면이 막히면 내가 캡처해서 보여줄게.

발급이 끝나면 열쇠(토큰) 하나가 손에 들어옵니다. 이걸 클로드코드가 읽을 수 있는 곳에 안전하게 저장해두면 연결 끝입니다.



복붙해서 연결할 때 쓰세요.

TEXT

방금 발급받은 인스타그램 토큰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이 토큰으로 릴스 mp4 한 개를 인스타에 올리는 걸 시험해줘.
 잘 되면, 앞으로 "이 영상 올려줘" 하면 바로 올라가게 정리해줘.

토큰 같은 비밀 값은 절대 코드에 그대로 박지 말고,
 공개되지 않는 설정 파일(.env)에 넣어줘.

4.3 MCP 로 더 간단히 가는 길도 있습니다

토큰 발급이 부담되면, 발행을 대신 해주는 **MCP** 를 붙이는 길도 있습니다. MCP 는 클로드코드에 도구를 꽂아주는 표준 연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행 도구 MCP 를 하나 연결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이 영상 올려줘"만으로 발행되기도 해요. 어떤 도구가 지금 쓸 만한지는 바뀌니, 클로드코드에게 "요즘 인스타 릴스 발행에 쓸 만한 MCP 알려줘"라고 물어보고 고르면 됩니다.

⚡ 한 단계 더 — 이 단계에서 막히면 붙잡고 있지 마세요. 영상(PART 3)까지 됐다면 사실 제일 어려운 산은 넘은 겁니다. 업로드는 손으로 올리면서 콘텐츠를 쌓다가, 양이 많아져 손이 벅찰 때 자동화해도 늦지 않아요. 순서를 "완벽한 자동화"가 아니라 "일단 올라가는 것"에 두세요.

◆ 이 PART의 핵심 정리

- 자동 업로드는 인스타그램의 정식 창구(그래프 API)로 올려야 한다
- 프로 계정 전환 + 페이스북 페이지 연결 + 토큰 발급이 준비물이고, 발급은 클로드코드에게 길잡이를 시키는 게 제일 빠르다
- 토큰 같은 비밀 값은 코드에 박지 말고 설정 파일(.env)에 넣는다
- 막히면 손으로 올리며 콘텐츠부터 쌓아도 된다. 제일 어려운 산은 이미 넘었다

PART 5 전체 6장

열흘치 미리 만들고 예약발행한다

여기까지 오면 릴스 한 편을 만드는 길이 뚫린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그 길을 **공장**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하나 만들 줄 알면, 열 개는 거의 공짜입니다.

5.1 틀은 그대로, 내용만 바꿔 찍어낸다

PART 3 에서 만든 릴스는 사실 "틀 하나"입니다. 이 틀에 PART 1 에서 뽑아둔 열흘치 메시지를 하나씩 갈아 끼우면, 열 편이 나옵니다. 이걸 한 편씩 손으로 시키지 말고, 한 번에 돌리게 합니다.



복붙해서 쓰세요. content.md 는 PART 1 에서 저장한 소재 표입니다.

TEXT

지금 만든 릴스를 "틀"로 삼아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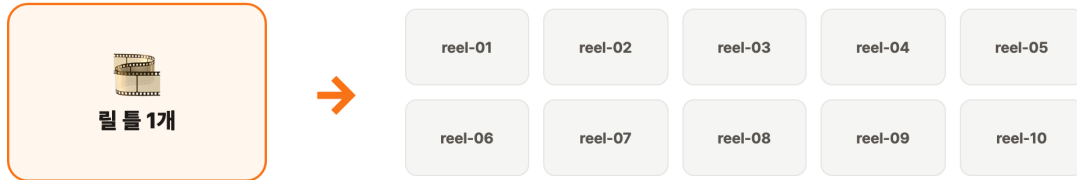
content.md 에 있는 릴스 10개 소재를 하나씩 이 틀에 넣어서,
릴스 10개를 각각 mp4 로 뽑아줘.

- 파일 이름은 reel-01.mp4 부터 reel-10.mp4 로
- 각 영상 자막·후킹만 소재에 맞게 바꾸고, 품(색·구조·리듬)은 똑같이
- 다 되면 어느 폴더에 몇 개 나왔는지 정리해서 알려줘

이게 자동화의 결정적 순간입니다. 사람은 소재만 정해주고, 나머지 반복은 기계가 합니다. 한 편이든 열 편이든 내 손이 가는 시간은 거의 같아요.

틀 하나로 열 편

내용(자막)만 바꿔 끼우면 나머지는 클로드코드가 자동으로 렌더합니다



사람은 소재만 정한다 · 한 편이든 열 편이든 손이 가는 시간은 거의 같다

5.2 미리 만들어, 예약으로 올린다

열 개를 한 번에 만들어두면, 매일 아침 "오늘 뭐 올리지"가 사라집니다. 그날그날 만들 필요 없이 창고에서 하나씩 꺼내 올리면 되니까요.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예약 발행:** 인스타 앱이나 비즈니스 도구에서 날짜·시간을 미리 정해 걸어두기. 만들어둔 mp4 를 날짜별로 걸면 손 놓고 있어도 올라갑니다.
- **자동 발행:** PART 4 에서 연결한 API 로, 정해진 시간에 클로드코드가 하나씩 올리게 하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예약 발행이 마음 편합니다. 완전 자동은 한 번 세팅에 손이 가니까요. 저도 "열흘치를 미리 다 만들어두고, 예약만 걸어두는" 방식을 오래 썼습니다. 매일 뭔가를 하지 않아도 열흘간 꾸준히 올라간다는 게 핵심이지, 사람이 0초 개입하느냐는 그다음 문제예요.

⚡ 한 단계 더 — 이 "미리 열흘치"가 왜 중요하냐면, 콘텐츠는 꾸준함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열정으로 한 편 잘 만드는 것보다, 열흘 동안 매일 한 편씩 올라가는 게 훨씬 셉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을 사람 의지가 아니라 "미리 만들어둔 창고"가 대신 지켜주는 것, 그게 이 5단계 전체의 목적입니다.

◆ 이 PART의 핵심 정리

- 릴스 한 편은 곧 "틀"이다. 소재만 갈아 끼우면 열 편이 자동으로 나온다
- 열흘치를 미리 만들어두면 매일의 고민이 사라진다
- 예약 발행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다. 중요한 건 완전 자동이 아니라 꾸준함이다

보너스 · 쓰레드는 도구가 필요 없다

지금까지가 릴스(영상)였습니다. 쓰레드는 훨씬 간단해요. 글이라서 Remotion 도, 렌더링도 필요 없습니다. 클로드코드에게 바로 쓰게 하면 끝입니다.



복붙해서 쓰세요.

TEXT

아래 릴스 소재를 쓰레드(Threads) 글로도 바꿔줘.

- 영상 자막 말고, 읽는 글 호흡으로
- 첫 줄은 넘기기 아깝게 후킹
- 짧게 끊어서, 정보 하나만 확실히

[릴스 소재 한 줄 붙여넣기]

릴스용으로 정한 소재 하나가 쓰레드 글 하나가 됩니다. 영상과 글을 같은 소재로 같이 뽑으면, 한 번 정한 주제로 두 채널을 동시에 채울 수 있어요.

답는 글 · 같이 만드는 사람들

여기까지가 제가 릴스를 찍어내는 방식 전부입니다. 비싼 강의가 아니라, Remotion 이라는 도구 하나와 클로드코드면 됩니다. 다시 한번 5단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무엇을 줄지 정한다
2. 벤치마킹할 릴스를 소싱한다
3. 그 폼대로 클로드코드 + Remotion 으로 만든다
4. API 를 연결해 올린다
5. 열흘치를 미리 만들어 예약한다

처음부터 다 자동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PART 3 까지만 해도 릴스 한 편을 직접 뽑을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하나씩 늘려가면 됩니다.

만들다 막히는 지점이 생기면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무료 자료실(docs.vibemake.kr)에 리모션·클로드코드 자료를 계속 올리고 있고, 카톡방에서 같이 만드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손이 아니라 도구가 일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걸 기억하시면, 방향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첫 릴스 한 편부터 만들어보세요.